

한국 양궁, 광주 무대 제패… 세계 최강 자부심 쫓다

광주 2025 세계양궁선수권서 금 2·은 1·동 4개로 종합 1위
전종목 석권 노린 리커브는 아쉬움… AG·올림픽 대비해야



‘광주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지난 12일 5·18민주공원에서 8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한국 양궁은 16년 만에 열린 안방 무대에서 세계 최정상급 기량을 뽐냈다.

2년에 한 번 열리는 세계양궁선수권 대회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건 지난 2009년 울산 대회 이후 16년 만이다.

이번 대회에는 76개국에서 온 501명의 공사와 인원 및 관계자 230명이 참가. 리커브와 컴파운드 종목(남녀 개인전·남녀 단체전·혼성 단체전) 10개의 금메달을 놓고 겨뤘다.

한국 양궁 대표팀은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4개로 종합 1위를 차지하며 ‘세계 최강’의 위치를 다시 입증했다.

먼저 이번 대회 첫 메달은 컴파운드 최용희(현대제철)가 따냈다. 최용희는 남자 컴파운드 개인전 3위 결정전에서 커티스 브로드스(미국)를 146-145로 꺾고 동메달을 차지했다. 한국 양궁이 세계선수권대회 컴파운드 남자 개인전에서 메달을 수확한 건 6년 만이다.

이전까지는 2019년 스텔트호벤스 대회에서 김충호(현대제철)가 따낸 동메달이 한국의 유일한 세계선수권대회 컴파운드 남자 개인전 메달이었다. 다만 이번 대회 컴파운드에서는 최용희를 제외한 대표팀 전원이 개인과 단체에서 탈락하며 아쉬

움으로 남는다.

한국이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리커브에서는 대량의 메달이 쏟아졌다.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광주은행)과 ‘파리올림픽 3관왕’ 김우진(청주시청)은 리커브 혼성전에서 은메달을 합작했다. 이들은 예선에서 세계신기록(1393점)을 합작했지만, 스페인에 2-6으로 패하며 2위에 만족해야 했다.

첫 금메달은 남자 단체전에서 터졌다.

김우진·김제덕(예천군청)·이우석(코오롱)이 팀을 이룬 한국 리커브 남자 대표팀은 단체전 결승에서 미국에 6-0 완승을 했다.

2021년 양크턴 대회부터 이 종목 1위를 놓치지 않았던 한국은 이로써 3연패 위업을 달성했다.

안산·임시현(한국체대)·강재영(현대모비스)가 합을 맞춘 여자 대표팀은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인도를 5-3으로 제압하며 동메달을 추가했다.

또 김제덕은 김우진과 이우석이 탈락한 남자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한국의 자존심을 지켰다. 이번 동메달은 김제덕의 개인 국제대회 개인전 메달이어서 의미는 더욱 깊었다.

대회 마지막 날에는 강재영이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주징이(중국)를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여자·혼성 단체전 우승만 3차례 이뤘던 강재영은 처음으로 개인전 금메달을 따내는 기쁨을 누렸다.

강재영의 종전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 최고 성적은 2019년 스텔트호벤스 대회 준우승이다.

또 ‘광주의 딸’ 안산은 이날 개인전 동메달을 추가. 총 3개의 메달(혼성 단체전 은메달, 여자 단체



지난 12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2025 광주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리커브 여자 개인전 시상식에서 선수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중국 주징이, 대한민국 강재영, 안산.

전 동메달)을 수확했다.

그 결과 한국 양궁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총 7개의 메달을 따내면서 멕시코(금 2·동 1)를 제치고 종합 순위 1위를 차지. 양궁 종주국의 자존심을 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 속에서도 아쉬움의 목소리가 높다. 대회 전 리커브 5개 전 종목 석권을 노렸던 대표팀이 목표 달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 리커브 양궁은 2021년 미국 양크턴 대회에서 세계선수권 5개 전 종목 석권의 위업을 이룬 바 있다. 더욱이 지난해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5개를 싹쓸이했던 것과 비교하면 기대치에 못 미쳤

다는 평가다.

여기에 혼성전에선 세계선수권 연승 행진이 깨졌다. 한국은 세계선수권에 혼성전이 도입된 2011년 토리노 대회 이후 2023년 베를린 대회까지 이 종목 7연패를 기록 중이었는데, 이번 은메달로 8연패가 무산됐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 10연패에 빛나는 여자 단체전도 준결승에서 대만에 탈미를 잡으며 동메달에 그쳤다는 점이 진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물론 ‘전 종목 입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는 점은 위안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경쟁국들의 기량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기에, 한국 양궁이 국제대회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과거 세계선수권대회 결과와 비교해 보면 이번 대회 성적은 평균치를 살짝 밑도는 수준이다. 팬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더욱 완벽해져야 한다.

앞으로도 굵직한 국제대회가 기다리고 있다.

내년에는 일본에서 열린 예정인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있다. 2028년에는 LA올림픽 또한 개최된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컴파운드 혼성전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고, 향후 정식 종목 확대 가능성도 있는 만큼 경쟁력 강화는 풀어야 할 과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화순군청 복싱 임애지, 한국 여자 최초 올림픽·세계선수권 메달

제1회 세계선수권 54kg급 동메달

임애지(화순군청)가 한국 여자 선수 최초로 올림픽과 세계선수권에서 동반 메달을 획득하는 대기록을 작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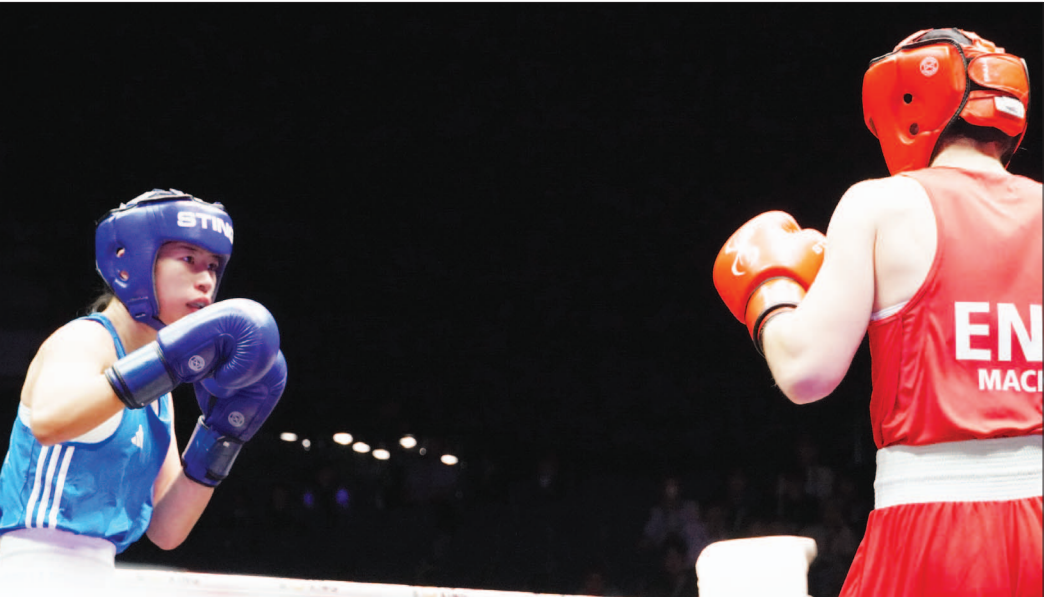
14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임애지는 최근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2025 월드 복싱 제1회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여자 54kg급 동메달을 획득했다.

임애지는 한국 여자 선수 최초로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메달을 확보한 상태에서 준결승 무대에 올라 황사오원(대만)과의 접전 끝에 아쉽게 패배하며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앞서 임애지는 16강에서 매키 로렌(영국), 8강에서 타티아나 헤지나 지 자수스 사가스(브라질)을 차례로 제압하고 준결승에 오르며 동메달을 확보했다.

복싱은 국제대회에서 동메달 결정전 없이 준결승전에서 패한 선수 2명이 동메달을 획득한다.

한국 복싱 선수가 올림픽 메달과 세계선수권 메달을 획득한 건 조석환(2004 아테네 올림픽 동메달·2003년 세계선수권 동메달) 이후 임애지(2024 파리올림픽 동메달·2025년 세계선수권 동메달)가 처음이다. 특히 한국 여자 선수로는 최초로라는 점에서 여자 복싱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한국 복싱 간판 화순군청 임애지가 임애지는 최근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2025 월드 복싱 제1회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여자 54kg급 동메달을 획득했다. 사진은 세계선수권대회 16강에서 임애지와 매키 로렌(영국)과 경기를 펼치는 모습. 땀남

평가된다.

더욱이 이번 대회는 기존 국제복싱협회(IBA) 체제에서 ‘월드복싱’체제로 변경된 후 개최된 첫 남녀 통합 세계선수권 대회로써 70여개국이 참가해 수준 높은 경쟁을 펼쳐 상징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주동현 전남도복싱협회장은 “임애지 선수의 도전과 투혼은 한국 복싱의 위상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려지게”라며 “꾸준한 좋은 성적을 위해 훈련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한국 여자 복싱의 역사를 열며 전남 체육인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준 임애지 선수가 매우 자랑스럽다”며 “선수들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FIFA, 등록 금지 어긴 축협·광주FC에 징계

축협, 벌금 3만프랑·광주, 1만프랑·상반기 선수 등록 제재

국제축구연맹(FIFA)이 선수 등록금지 조치를 어긴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 광주FC에 각각 벌금과 내년 상반기 선수등록 금지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대한축구협회는 14일 “FIFA로부터 전날 징계를 통보하는 공문이 도착했다”며 “FIFA는 축구협회와 광주가 등록 규정을 어긴 게 명백해 징계 규정 제21조 ‘결정불이행’ 조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FIFA는 공문을 통해 축구협회에 벌금 3만 스위스프랑(약 5250만원)을, 광주에는 향후 두 차례

등록 기간에 선수 등록 금지와 더불어 벌금 1만 스위스프랑(175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축구협회의 벌금은 향후 1년 동안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으면 유예해 주기로 했다. 광주 역시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으면 두 번째 등록 금지 징계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광주는 2026년도 상반기 경기 등록 기간에는 선수 영입(국내 및 국제 등록 모두 포함)에 제재받지만, 하반기 추가 등록 기간에는 새로운 선수를 등록할 수도 있다.

앞서 광주는 외국인 공격수 아사니 영입으로 발

생한 연대기여금 3000달러(420만원)를 송금하지 않아 FIFA로부터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다.

관련 업무를 보던 구단 담당자는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휴직하면서, 광주는 연대기여금을 송금하지 않았다.

FIFA의 징계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광주는 결국 지난 겨울 이적시장에서 10여명의 선수를 영입해 경기를 치렀다.

축구협회 또한 FIFA의 징계 공문을 광주에 전달했으나 후속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광주의 선수 등록을 받아주는 실수를 저질렀다.

FIFA는 이에 지난 6월 등록금지 규정을 어긴 축구협회와 광주에 대한 징계 검토 절차를 알리는 공문을 보내왔고, 이번에 징계위원회 결정문을 통보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AI페퍼스 아시아쿼터 시마무라 하루요 입국

세계선수권 4강 마치고 합류…오픈 트레이닝서 첫 인사

페퍼스측은행 AI 페퍼스 여자프로배구단이2025-2026시즌 아시아쿼터 선수로 영입한 시마무라 하루요(33·일본)가 지난 12일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시마무라는 2010년 NEC RED Rockets에 입단해 일본 V리그에서 활약했으며,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과 2020 도쿄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했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했다.

그는 당초 지난 7월 1일 입국할 예정이었으나, 일본 대표팀 일정으로 2025 발리볼 네이션스리그(VNL)와 세계여자배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면서 합류가 미뤄졌다. 이번 세계선수권 4강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입국해 본격적으



로 AI페퍼스 유니폼을 입게 됐다.

시마무라 하루요는 “세계선수권대회 기간 한국 팬들의 응원을 받아 기뻐다”며 “팀원들과 적극 소통하며 새로운 팀에 빠르게 적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마무라는 입국 직후 광주로 이동해 구단 매디컬 테스트를 거쳐 훈련 캠프에 합류한다. 15일 열리는 AI페퍼스 멤버십 팬 대상 오픈 트레이닝에서 처음으로 팬들에게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도장애학생체육대회’ 내일 순천시 개막

19일까지 8개 종목 700명 참가…“유망주 발굴·육성 집중”

전남 장애학생들의 스포츠 대중제인 ‘제7회 전라남도장애학생체육대회’가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순천시에서 열린다.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전남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무대이기도 한 이번 대회는 보치아, 수영, 육상, 배드민턴, 실내조정, e스포츠, 줄리, 역도 등 총 8개 종목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새롭게 개관한 순천여울림체육센터에서 6개 종목 경기가 펼쳐지며, 자전기 안전교육 체험종목이 처음 도입돼 학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 대상은 전남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복지카드를 소지한 학생들로 올해는 선수 358명·임원 및 운영요원 342명 등 총 700명이 참가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남 최대의 장애학생 체육대회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이번 대회는 전남도교육청이 후원하고 전남장애인체육회와 각 종목별 경기단체가 주관해 개최된다. 학교체육에서 출발한 장애인체육이 전문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무대이며, 종목별 입상자에게는 내년도 전국



장애학생체육대회 전남대표 출전 자격이 주어진다. 이에 이번 대회는 전국대회에 버금가는 수준 높은 경기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현 전남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목표를 이루는 뜻깊은 대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학생 체육이 꾸준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고, 유망한 선수들을 적극 발굴·육성해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